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나눔 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5년 10월 제 **142-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윤병길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0432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89(동자동)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서울역 이전 후 석달, 병원 운영 안정세 접어들어 환자 편의성 높이고, 방문진료 봉사자 확충



노숙인과 쪽방주인이 많이 모여있는 서울역 인근은 급식이나 쉼터 등 노숙인 지원활동도 활발하나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다. 본원은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하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병원 가기를 꺼리는 가난한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개선했고, 방문진료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 아래는 본원을 방문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본원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고영초 원장의 대화 장면.

본원이 지난 8월 1일 서울역 동자동으로 이전해 진료를 시작한 뒤, 병원 운영이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요셉의원이 위치한 동자동을 비롯한 서울역 인근은 전국에서 쪽방 주민과 노숙인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만 600명 이상이며, 동자동과



남대문 후암동 약현동 등지의 쪽방과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런 사회 극빈층을 돕는 손길도 활발하다. 급식과 상담, 의료지원, 쉼터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10여 개 기관·단체가 활동 중이지만, 실제 의료서비스를 직



병원 운영 안정세 접어들어



1



6

재단/병원 소식



10

봉사자 코너



16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20

국성회 소식





밖에서도 진료일정을 볼 수 있도록 병원 현관에 설치한 모니터.

접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다.

본원은 이런 의료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아파도 돈이 없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거동 불편한 중증 환자 같은 ‘숨은 환자’를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 본원 원무팀과 요셉이웃사랑센터는 ‘취약계층 의료 지원 추천서’를 마련해 9월부터 인근 노숙인 지원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손쉽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영초 원장은 “지난 7월 22일 영등포에서 서울역 동자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 가톨릭 매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소식을 많이 알려주셔서,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뿐 아니라 보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자주 찾아온다”며, “교통 접근성이 좋아 환자와 봉사자들이 쉽게 오갈 수 있어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이어 “서울역으로 이전한 뒤 봉사의 선생님이 여럿 새로 참여하셔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진료 환자 수 증가 추세

병원 이전 3개월이 지난 현재, 진료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8월 진료 건수는 977건이었으나, 9월에는 1,286건으로 크게 늘었고, 신규 등록 환자 수도 8월 48명



본원 상근 의사인 고영초 원장이 환자를 진료하는 장면.

구분	7월	8월	9월	전월증감
진료횟수	979	977	1286	309
진료일수	14(이사)	20	22	2
진료인원	502	509	568	59
신환인원	10	48	111	63
진료건수/인원	1.95	1.92	2.26	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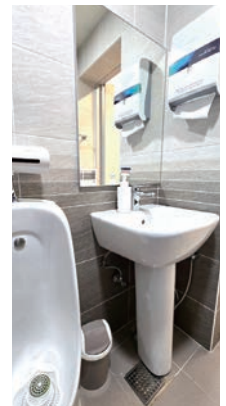
서울역 이전 전후 진료 환자 수

에서 9월 111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규 환자 증가의 주요 요인은 서울역 인근 쪽방 주민과 노숙인들이 새로 진료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고 원장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치과 환자까지 포함해 하루 150명 정도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역 요셉의원은 늘어나는 환자 수에 비해 진료 공간이 좁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서울역 요셉의원 건물은 대지면적 48평(158.70㎡), 건축면적 27평(89.18㎡), 지하 1층 지상 7층에 연면적 222평(734.19㎡) 규모로, 층별 면적이 협소해 환자가 몰릴 때는 1층 접수대와 2층 진료실, 5층 치과가 혼잡해질 수 있다.

이런 불편을 감안해 본원은 시설과 일부 원무 시스템을 조정했다. 영등포 시절에는 없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휠체어 환자를 비롯한 다리 불편한 환자들이 진료실과 검사실, 약제실, 치과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

또 새로 리모델링한 병원 건물은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이 깨끗하게 꾸며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환자들의 위생을 고려해 화장실마다 손세정제와 종이 수건을 비치했다.



영등포에서 찾아오는 조상국 씨(55)는 “공간은 좁지만 병원이 훨씬 깨끗해 만족스럽다”며, “예전 영등포 요셉의원은 약제실과 검사실, 엑스선 촬영실 대기 환자가 한 곳에 모여 대기하면서 소란스러웠는데, 지금은 층별로 떨어져 있어 오히려 조용하다”고 덧붙였다.

병원 출입구 옆에는 ‘오늘의 진료 안내’(진료과와 담당 의사, 진료시간)를 전광판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1층 원무팀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를 달아 2주간의 진료 일정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김선영 간호팀장은 “봉사의 선생님의 일정에 따라 진료 스케줄이 바뀔 수 있으므로 내원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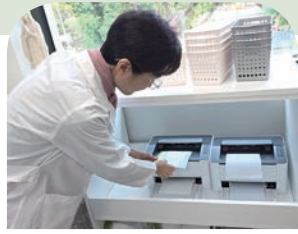
약제팀은 후원자의 도움으로 자동 약 포장기를 기존 94종에서 152종의 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신기종으로 교체하고, 약 봉투 인쇄도 자동화해 수작업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환자가 진료 후 대기 없이 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층에서 접수 후 상층 진료실이나 검사실로 이동할 때, 안내 봉사자가 엘리베이터를 미리 호출해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빠른 이동을 돕고 있다. 영상의학실에서는 X선 촬영기를 종합병원급 첨단 기기로 교체해 촬영 편의성과 방사선 안전성을 모두 개선했다.

요셉의원 부담으로 상급병원 치료 주선

고령화로 인해 쪽방 주민이나 노숙인 사이에서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대사질환이 흔하다. 본원은 내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에서 처방받는 환자들이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1층 접수대에서 예진 간호사가 미리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있다. 당뇨환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해주고 있다.

신규 등록 환자는 기초 건강검진(혈압, 체중,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선 등)을 진행하며, 기존 환자는 2년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유무를 점검한다. 김정순



약제실의 자동 약 포장기(아래)와 자동 약 봉투 인쇄로 환자 대기 시간이 많이 줄었다.

원무담당자는 “정밀검사나 상급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모든 비용을 본원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2일, 간경화가 의심되는 박 모 환자(37)는 본원 원무팀에서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보내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고 본원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원했다. 이 환자는 지속적으로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경추 협착증을 동반한 목 척수신경 손상으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던 이 모 환자(77)는 본원 부담으로 CT와 2회에 걸친 MRI 검사 후 9월 중순 본원 협력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잘돼 요양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하던 이 씨는 지난 9월 28일 고령으로 인한 갑작스런 심정지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 환자는 사망하기 전 날 본원에 전화해 “고맙다,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치과 응급환자, 당일 진료 적극 실시

본원 치과는 서울역 이전 후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진료와 상담 시간을 크게 늘리고, 응급 환자 당일 진료도 적극 시행 중이다.

먼저 신규 환자의 상담 일수가 기존 주 2일에서 4일로 확대돼 예약 대기일이 짧아지고, 그에 따라 예약 이행률이 50% 이하에서 67%로 높아졌다. 상담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낮진료도 주 3일에서 4일로 확대됐다

이민경 치과팀장은 “특히 신규 환자가 낮 진료 시간에 상담을 받은 뒤,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당일 진료도 가능하게 됐다”며, “치통으로 고생하는 환자는 예약일이 아니거나 담당의사가 아니라도 의사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해 응급 통증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치과 역시 영등포 시절에 비해 진료 공간이 좁아 진료와 환자 대기에 다소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



심한 치통 환자는 당일 방문해 치료가 가능하다. 사진은 이충규 치과봉사의 진료 장면.



방문진료를 담당하는 요셉이웃사랑센터의 월요 봉사팀이 쪽방촌 방문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러 안분이 센터장 수녀와 방문 결과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 방문팀의 김 스텔라 수녀(간호사)가 족부 궤양 환자를 방문해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 주는 모습.

기 환자는 3층 약제실에서 대기하다 5층 치과로 이동해야 한다. 이 팀장은 “공간이 좁아 의료진과 환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다보니 친밀감이 높아졌다”며, “서로 인사하고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분위기 속에서, 비좁은 공간이 오히려 마음을 더 넓게 만드는 것 같다”며 웃음지었다.

매주 평일 오후 쪽방촌과 고시원 찾아

서울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원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 중 하나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와, 아픈데도 병원 방문을 꺼리는 환자를 직접 찾아가 치료받도록 돕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요셉이웃사랑센터를 개설해 산하에 방문진료팀과 사회사업팀, 진료지원팀을 두어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동자동과 후암동 일대 쪽방촌과 고시원, 서부역 텐트촌 등을 찾아 환자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간호와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진료팀은 서울성모병원 수간호사 출신 20명과 임상사목(CPE)을 공부하는 7명 등 외부 봉사자와, 본원 직원 세 명으로 구성해 요일별로 팀을 나눠 한 팀이 서너 곳을 방문한다.

안분이 센터장 수녀는 “우리 센터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전인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등록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본원 원무팀과 협력해 신속히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 돈의동 쪽방지역은 이전부터 월요일마다 환자 방문과 침 치료를 하고 있고, 화요일에는 응급의학과 의사 세 명이 돌아가며 방문 진료를 계속하고 있다. 요셉이웃사랑센터는 올해 말을 전후해 동자동 쪽방촌에 사무실을 마련해, 환자 접근성과 봉사팀의 활동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문 봉사자 확보에 어려움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본원에 대해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원은 선우경식 초대원장의 뜻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받지 않고 있으나, 가난한 환자를 돕는 일에는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가진 축복식 행사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석해 “요셉의원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원도 구청과의 여러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어 9월 25일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본원을 방문해 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본원 선우경식 초대원장과 요셉의원의 활동상을 담은 동영상상을 시청했다. 이 차관은 영상 시청 뒤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느냐”며 눈시울을 붉히고, “개인적으로 요셉의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 이야기를 면밀히 검토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본원이 수행하고 있는 빈민 의료 복지 활동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방문 전담 봉사자를 비롯해 전문 봉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원은 의사와 간호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상담사 등 전문 봉사자 인력 충원을 위해 관련 협회나 기관, 봉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과는 높지 않다.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분들의 동참을 적극 환영한다”며, “후원자와 봉사자 여러분의 도움에 사랑을 더해, 아프고 가난한 이들이 병을 이겨내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돕고 응원하자”고 당부했다. +



쪽방촌 향기

‘서울에서 필리핀까지, 요셉의원이 이어준 12년의 인연’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 작년 8월 처음 간 필리핀. 그 후 1년, 상상도 못 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우연처럼 엮힌 인연들이 결국은 하느님의 뜻이었음을 믿는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둥글게 이어진 인연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되어 필리핀 빈민촌까지 닿은 12년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8월 15일, 제1차 요셉나눔재단 의료봉사단(단장 홍근표 바오로 신부님)의 일원으로 처음 필리핀 땅을 밟았습니다. ‘쓰레기 산’과 ‘검은 강’, 그리고 ‘격한 빈부격차’ 등은 익히 들어온 이야기들이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012년, 선의복지재단의 도움으로 건국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았던 일곱 살 필리핀 소녀 피오나(Fhionna). 12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만남

시간을 거슬러 2012년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작고 까무잡잡한 피오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서울 건국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체중은 또래의 하위 1%에 불과했고, 아주 큰 심실중격결손으로 인해 폐동맥 수축기압 104mmHg에 달하는 심한 폐고혈압을 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의 여지는 남아 있었으나, 고향으로 돌아가면 꾸준한 투약이나 검진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심방중격결손을 작게 만들어 주면서, 큰 심실중격결손을 막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퇴원 시 폐동맥 수축기압은 46 mmHg로 떨어졌습니다. 떠나는 날, 피오나는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로 시작되는 사랑 가득한 그림과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밝게 웃는 그 아이를 배웅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무

양현숙

본원 봉사의·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거웠습니다. ‘이 아이,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필리핀 요셉의원에서의 재회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2024년 8월, 필리핀 요셉의원에 나타난 피오나는 더 이상 삐삐 머리 꼬맹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19세의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지요. 나는 12년 전 그때의 그림을 꺼내 보내주었지만, 피오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서운했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짜사랑이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폐고혈압은 퇴원 당시 정도로 남아 있었고, 당장 폐고혈압 약이라도 먹여야 하는데, 필리핀 현지에서 그 비싼 약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서울 요셉의원(병원장님, 황보 수녀님, 해외지원팀)의 도움으로 피오나에게 폐고혈압 약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다솔 야고보 필리핀 요셉의원 원장신부님의 배려로, 필리핀 요셉의원이 허브가 되어, 서울에서 심장수술을 받았던 다른 아이들도 진찰할 수 있었습니다. 몸도 꿈도 훌쩍 자라 있었지요. 그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버리지 않았구나. 앞으로도 함께 돌볼 방법을 찾아야겠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그러던 중,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가톨릭의사협회(AFCMA) 모임에서, 대외협력 이사를 맡았던 나는 필리핀 심장병원 관계자분들과 성가밀로 수도회 신부님들(서정주 안드레아, 강영민 안드레아)을 뵈



7세때 심장수술을 받았던 필리핀 어린이 피오나(왼쪽)를 12년 뒤 필리핀에서 재회했을 때의 모습.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AFCMA 셋째 날 명동성당 앞에서 필리핀 심장병 아이들을 돕기 위한 각 분야의 인재가 모이게 되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필리핀 현지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수술 적기를 넘겨서 청색증이 너무 심하게 진행된 세 명의 아이들은 서울에 와서 개흉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5일, 제2차 요셉나눔재단 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다시 필리핀 요셉의원을 찾았을 때는, 전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심장병 클리닉을 열고(박정의 교수님, 조순정 선생님), 피오나를 비롯해 올해 수술받은 아이들이 모두 만나고 진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작년 8월 처음 간 필리핀. 그 후 1년, 상상도 못 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연처럼 얽힌 인연들이 결국은 하느님의 뜻이었음을 믿습니다. 감사와 경이 속에서, 이제는 조금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2025년 한가위 보름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은총이 모든 이의 마음 깊은 곳까지 고요히 스며들길 기도합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생명의 사랑이 피어나길, 서울 쪽방촌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필리핀 빈민촌까지 이어지길..., 아멘. +



2025년도 제2차 재단 임시 이사회 개최 윤병길 신부 본 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돼



2차 임시 이사회 회의 장면. 오른쪽은 이번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윤병길 신부.

2025년도 요셉나눔재단 제2차 임시 이사회가 9월 24일(수) 오후 5시 서울 중구 명동 서울대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고영초 병원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변경 및 정관 변경 안건들이 중점적으로 심의·의결되었고, 신임 재단 이사장으로 윤병길 세례자요한 신부(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장)가 선출됐다.

재단 사무국은 이날 서울역 요셉의원 이전 진행 상황과 이후 운영 방



향에 대해 중점 보고했다. 주요 보고 내용으로 △8월 1일부터 서울역 요셉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이후, 진료·행정 전반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고, 환자 수와 자원봉사자 수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쪽방촌 대상 이웃리치 강화, 단기 봉사 확대, 치과 진료 재개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업, 자원봉사자

접근성 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윤병길 사회사목국장 신부는 1995년 7월 사제 수품을 받았다. 동작동본당 보좌신부를 시작으로 길동성당과 행당동성당 보좌신부를 거쳐, 1999년부터 5년 가까이 군중신부로 사목했다. 이어 교구 사목국(세나투스) 차장신부와 남대문시장(준)성당, 신월동성당, 목동성당 주임신부를 역임하고 2023년 9월부터 사회사목국 국장 신부로 재직하고 있다.



본당 주임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장 중심' 사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윤 신임 이사장은 교구 사회사목국장직과 본 재단 이사장직을 겸임하게 된다.

금년도 하반기 워크숍 개최... 사목지침도 발표

본원은 9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층 경당에서 임직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료사업실과 요셉이웃사랑센터, 요셉영성센터, 행정실 산하 20개 팀과 필리핀요셉의원 및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담당자가 2025년도 사업실적과 2026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표된 각 팀별 2026년도 예산안은 심의와 조율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사업계획 발표 뒤 내년도 사목지침을 공지했다. 사목지침 내용은 ▲선교하는 시노드 정신으로 ▲모두의 요셉의원 ▲젊은이와 함께하는 요셉의원 등 모두 세 항목. 홍 신부는 사목지침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서울역으로 이전한 뒤의 병원 정착을 위한 사업 시행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하느님 뜻을 찾아 함께 동행하는' 시노드 정신을 살려 먼저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갖자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은 물론 환자과 봉사자, 직원 모두가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뤄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리더십을 예로 들며, 함께 나누는 신앙공동체가 되려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우경식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하느님 뜻을 찾아 이를 공유하고 자극을 주셨듯, 리더들 역시 기도를 통한 영감을 얻어 팀원들과 나누며 팀을 이끌어가자고 권유했다.

고영초 원장은 원장 취임 2년 반 동안의 소회를 밝히며, 특히 요셉의원에서도 모든 의료 정보가 디지털화된 점은 환자 진료를 위해 매우 만족할 만한 일이라고 평했다. 고 원장은 요셉의원에서 일하면서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하는 한편, 2년 반의



본원 7층 경당에서 열린 워크숍 장면.

세월이 행복하고 기쁜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전했다.

복지부 2차관, 본원 진료 현장 둘러보고 의견 청취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월 25일 오전 본원을 방문해 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선우경식 초대원장과 본원 소개 영상을 시청한 뒤,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고영초 원장과 빈민 진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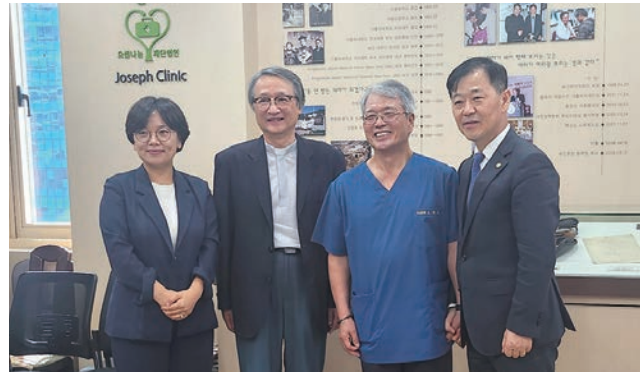


사진 오른쪽부터 이형훈 차관, 고영초 원장,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복지부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

이 차관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국민들의 곁을 지켜주신 요셉의원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료와 돌봄 등 공공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의료진,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들려주신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현재 마련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로드맵'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개 영상 시청 뒤 눈시를 붉히기도 한 이 차관은 "개인적으로 요셉의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본원, 서울남부하나센터와 북한이탈주민 치과진료 지원 협약

본원 고영초 원장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서울남부하나센터 이원석 센터장 신부는 9월 16일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치과 진료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본원은 서울남부하나센터에서 의뢰하는 북한이탈주민 치과 환자를 한 달에 한 명 정도 무료 진료해 줄 예정이다. 치과 치료에는 틀니나 씌우기(크라운) 등 보철 치료와 충치, 신경 치료 같은 보존 치료 등 미용 치료



본원 고영초 원장과 서울남부 하나센터 이원석 센터장 신부.

를 제외한 전 분야가 포함된다.

고영초 원장은 “치아 문제로 고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건강을 회복해 우리 사회에 하루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성애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서 체결

본원 고영초 원장과 성애병원 심규호 원장은 10월 21일 본원 6층 회의실에서 협력병원 협약에 합의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상호 환자 의뢰와 회송 ▲의학적정보 교류 ▲의료기술 자문 ▲검사 의뢰 및 회신 등 환자 전원과 상호 진료 협조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본원 고영초 원장과 성애병원 심규호 원장.

본원은 영등포에 있을 때인 2021년 1월 영등포구 여의대방로에 위

치한 성애병원과 처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상급 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전원시켜 치료받도록 했다.

추석 앞두고 쪽방촌에 조출한 선물 나눔

본원 요셉이웃사랑센터에서는 추석을 앞둔 10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동자동 쪽방촌과 고시촌을 돌며 조출한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 우유와 영양갱, 팬티와 양말로 구성된 이번 추석 선물은 모두 200개를 준비해 50개는 미리 방문하던 고시촌에, 그리고 150개는 처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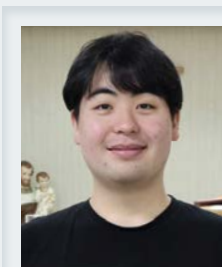
본원에서 200개를 만들어 쪽방촌과 고시촌에 나눔한 추석 선물 꾸러미.

하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했다. 이번 나눔은 본원이 서울역으로 이사왔다는 인사 겸 안내를 겸해서 이뤄졌다.

무료 병원이 가까이 이전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반색을 하며, 자주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신학생 현장 체험 소감문

‘하느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이용운 미카엘
광주대학교 신학생

3월의 눈 내리던 날, 제 마음 한 켠에는 걱정이, 다른 한 켠에는 기대를 간직하고 요셉의원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실수 하면 어찌지?’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보고 싶다”는 작은 다짐을 품고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은 제가 무엇을 ‘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배우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요셉의원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분들, 자포자기한 눈빛으로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을 보며, 때로는 무력감과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누구보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실 예수님을 떠올리며 다시 용기를 얻었고, “예수님이라면 저들을 그냥 두셨을까?”라는 물음이, 다시 한 번 저를 그분들 곁으로 걸어 가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분들이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기 삶이 힘든 와중에도 서로 나누고, 웃고, 하루를 즐거워하고, 또 고마워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차 식어가던 사랑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다듬어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습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언젠가 선우경식 요셉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셉의원에서 받은 이 선물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앞으로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좋은 시간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울 수 있는 사목자 되기를’



장태은 라파엘
수원교구 신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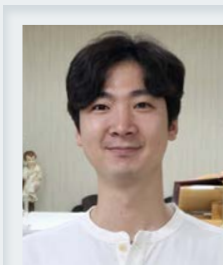
요셉의원에서의 3개월은 제 삶을 깊이 흔든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의료봉사를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삶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사제로서의 방향성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자주 했던 일은 매일 도시락을 들고 쪽방을 방문하거나 병원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단한 삶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큰 선물이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열지 않으셨던 분들이 다음날에는 먼저 문을 열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실 때, ‘머무는 사랑’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따뜻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다가가도 마음을 열지 않거나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을 되새기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우경식 선생님의 삶의 흔적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그분이 세운 요셉의원에는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과 가난한 이들과 곁에 머무는 용기, 겸손함이 스며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정신은 여전히 요셉의원 가족들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고, 저 또한 그 정신을 마음에 품고 돌아갑니다. 요셉의원에서의 경험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와,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해주었습니다. 진료를 넘어서, 사람을 기억하고 그 곁에 머물며 함께 울 수 있는 사목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의술이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닿는 진정성이 복음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떠나는 지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요셉의원에서 만난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언젠가 이 정신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김동준 마티아
수원교구 신학생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떨리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책으로만 읽고, 학교에서만 배웠던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말은 제게 언제나 아름다운 이상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마주하는 첫 순간, 나의 마음은 예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내 몸은 어색하고, 낯설고,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요셉의원에서의 첫 만남은 그런 나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환자분들의 깊은 눈빛을 마주하며, 나는 내 안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들의 고통 앞에서 진심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자꾸만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런 나의 마음이 180도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이자 동반자이고, 가까운 이웃으로서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삶의 상처를 드러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가난한 이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는 존재이고, 친구라는 것을. 그들의 밝은 미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 중에도 피워내는 친진난만함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현존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의원에서의 실습 기간을 통해 사랑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제가 앞으로 걸어갈 사제의 길에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이번 실습기간을 통해 진정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을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봉사자 코너



진단검사실 박주현 봉사자

“봉사는 바쁜 시간 쪼개서 해야 더 보람 있어요”



박주현 봉사자는 은퇴 후 노래 동아리 활동과 단기 계약직 업무로 바쁜 가운데서도 본원에 한 달에 두 번씩 빠지지 않고 봉사를 나온다.

“요셉의원에 봉사 나오면서 감사한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환자분들의 진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뿌듯하지요.”

매주 둘째·넷째 화요일 저녁, 본원 진단검사실에서 채혈과 소변 검사, 당뇨 검사 등 임상병리 검사 업무를 맡고 있는 박주현 봉사자(임상병리사)는 여러 봉사자가 흔히 말하듯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다.

박 봉사자가 요셉의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부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팀 팀장으로 재직할 때였다.

“2008년 3월쯤부터 봉사를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병원 간호부에서 먼저 요셉의원에 봉사 나갔다가 임상병리팀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수요일에 봉사하다가 목요일에도 봉사자

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진단검사팀 전체가 조별로 나눠 봉사하게 됐죠.”

박 봉사자가 첫 단추를 끼운 부천성모병원 진단검사팀의 단체 봉사는 이제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 팀은 요셉의원 봉사에 적극 참여한 공로로 2019년 6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수여하는 ‘영성 구현상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가 큰 힘 돼

재직 당시 가톨릭의료협회가 주관한 의료봉사팀으로 필리핀과 몽골에 다녀왔고, 부천성모병원 카자흐스탄 의료봉사에도 세 차례나 참여했다. 2022년 정년퇴직한 뒤에도 요셉의원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러한 봉사 활동 뒤에는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시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아 가족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카자흐스탄 의료봉사를 가게 됐어요. 맘머느리로서 남편에게 걱정된다고 말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큰머느리 올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해서 너무 고맙쥬요.”

시아버지는 박 봉사자가 귀국한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하느님과 시아버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고 회상했다.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그는 성경이나 신앙 서적을 많이 접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도 늘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봉사 활동의 의미와 보람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봉사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시간을 쪼개서 하는 게 더 보람되다고 생각해요. 봉사 활동을 통해 의미와 보람을 얻게 되면 그것이 또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 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퇴직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그는 노래 동호회에도 가입해 활동하는 한편, 영등포의 한 병원에서 단기 계약직 건강검진 요원으로 출장 검진을 다니고 있다. 지난해 가입한 ‘시니어가톨릭합창단’은 매주 수요일 신촌 음악교실에

서 연습하며 공연 무대에도 선다. 가톨릭 계열 합창단이다 보니 성가를 많이 부르게 되어, 최근에는 본당 성가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항상 만원인 새벽 지하철 출근길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출장 검진 업무는 주로 채혈로서, 아침 일찍 여러 직장을 돌며 일한다. 자택인 부천에서 영등포까지 가기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쯤 지하철을 타면 늘 만원이다.

“새벽부터 일하는 건 처음이라 지하철 승객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항상 만원이라 깜짝 놀랐어요. 줄을 지어 탑승을 기다리는 분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산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박 봉사자는 “평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자’고 생각하고 있어, 하느님이 돌봐주시는 요셉의원 봉사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계속하겠다”며 미소지었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자’는 게 그의 평소 소신이다.

환자스토리



힘한 세파 헤치며 동자동 쪽방촌에 정착한 안홍식 환자

“걸을 수만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요”



사고로 얼룩진 삶이지만 마음만은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안홍식 씨.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속이 불편해 토하기 때문에 아주 적게 먹습니다. 요새는 잠을 한 숨도 못 자서 밤새 누워 TV만 봐요.”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안홍식 환자(52)는 나이는 ‘젊은 장년’이지만, 몸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다. 젊은 시절 배를 타다 다쳐 오른쪽 골반뼈와 정강이뼈에 인공관절을 삽입했다. 좌우 다리 길이가 달라 절뚝거리며 목발에 의지해 걷는다. 직선거리로 400

미터 남짓한 요셉의원까지 걸어가려면 30분 넘게 걸린다.

“얼마 전 요셉의원이 이 앞으로 이사 오고 나서 방문 진료

선생님들이 들러 살펴주시고, 봉사자분이 가끔 병원 오가는 걸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지요.”

검사 결과, 엑스선 소견상 위장 등 소화기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고영초 원장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골반 부위와 심장 부위에 가끔 통증이 있고, 최근에는 수면 장애가 심해 정신과와 심장내과 약을 처방받았다”며, “증상이 악화되면 내시경이나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차례 큰 사고로 고관절 망가져

남쪽 바닷가가 고향인 안 씨는 일찍이 부모의 사망과 형의 사고사, 청년 시절 세 차례의 대형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 등, 평범한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자그마한 땅에 농사를 짓던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머니와 저를 싸리나무 매로 때리고 밥상이며 살림살이를 엮었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시는 기척이 보이면 어머니와 함께 옆집 아는 할머니댁으로 도망가곤 했죠. 결국 아버지는 술병으로 돌아가시고, 한 달 뒤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는 학교 문턱도 밟지 못한 채 떠돌다, 10대 후반에 서울로 올라와 중국집 배달 일을 하다 첫 번째 큰 사고를 당했다. 음주 운전 차가 직진하는 그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

“그때 헬멧 안 썼으면 죽었을 겁니다. 오른쪽 팔, 다리와 갈비뼈까지 모두 부러져 병원에서 1년 반이나 입원했었어요.”

음주 운전 여성 운전자는 경찰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며 간청했고, 마음 약한 그는 이를 받아들였다. 입원 기간 내내 그녀는 매일 병문안을 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퇴원할 때 그는 당시로서는 큰돈인 1,600만 원의 위로금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두 번째 사고는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탔을 때 일어났다. 첫 사고 후 고향에서 잠시 쉬던 그는 20대 초반에 직업소개소를 통해 원양어선에 승선했다.

“어느 날 고기잡이 그물을 올리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 그물을 지탱하는 롤러에 세계 부딪혔습니다. 그 바람에 고관절에 금이 갔지요. 2년 뒤 배가 부산으로 귀항하면서 수술 치료를 받았습니다.”

“도둑질만 빼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2남 1녀 중 막내인 그는 형제, 친척과도 인연이 열었다. 수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스팔트 절단기 작업을 하던 형이 폭발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형의 사망보상금 1억5천만 원은 수의사인 작은 아버지와 누나가 받아서 처리했다.

이후 할 일을 찾던 그는 새우잡이 배에 올랐다가 세 번째 큰 사고를 당해, 엉덩이뼈가 부서져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몸에 철심을 80개나 박았다.

“그때가 20대 중후반이었는데, 다치고 나니 걸음을 빨리 걸을 수가 없어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매형이 가축을 키워보라고 해서 닭과 오리 등 수백 마리를 몇 년간 열심히 키웠죠.”

하지만 이 일도 오래가지 못했다. 군사보호구역이라 군에서 수용해버리면서 사업을 접었다. 가축을 판 돈은 사료 공급 루트를 맡았던 매형이 모두 가져갔다.

30대 초반 무렵 목포로 내려



고영초 원장에게 진료받는 안홍식 환자.

40대 초반에는 쌍문동 갈비집에서 몇 달 간 숯불 피우는 일도 했다.

“40대가 되니 날씨가 흐리면 인공관절 부위가 저려서 일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으로 와 다시서기센터에서 텐트를 얻어 노숙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기초생활 수급을 받았습니다.”

“자주 아프지만 얹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시 서울역에는 목사들이 요일별로 천막을 치고 선교활동을 하고 있어, 천막 치는 일을 도와주며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하게 됐고, 교회 봉사로 이어졌다.

지금 나가는 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주일 오전에 예배 준비를 위해 의지를 정리하고, 예배가 끝나면 참석자들에게 간식 나눠주는 봉사를 한다. 또 목요일 저녁이면 봉사자들과 컵밥을 300개 이상 만들어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나눠준다.

언젠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한 목사로부터는 예수님 역할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두 달 정도 예수님 복장을 하고 매를 맞으며 십자가를 지고 다닌 일도 있다.

“맨발에 예수님 가발을 하고 가시관을 쓴 채, 제 키보다

큰 십자가를 메고 가는 역할이었어요. 로마병정 노릇을 하는 노숙자가 채찍으로 저를 때리며 행진을 하면 목사님은 앞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외치며 선교하는 방식이었어요. 서울역과 광장시장, 청량리 경동시장, 성남 모란시장까지 다녔습니다.”



좌우 다리 길이가 달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조기를 착용해야 한다.



여러 가지 험한 일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는 남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제 몸이 아픈 건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지, 하느님이나 다른 분 잘못은 아니에요. 이렇게 걸을 수만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요. 쪽방에 누워 밖에 못 나오는 이들도

적지 않거든요. 예배 드릴 때 자주 아프지만 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 두끼도 양을 적게 먹기 때문인지 아윈 몸에 눈도 쾅한 그는 웃는 모습만은 환하다. 험난한 세파를 거처온 세월이 무색할 만큼, 그 웃음에는 맑고 천진한 빛이 서려 있다.+



후원의 손길

손주 사랑으로 후원 시작한 유성열 후원자

“손주 탄생의 기쁨을 나눔과 감사로 봉헌합니다”

11년 전부터 본원을 후원하고 있는 유성열 후원자(70)는 손주들이 태어날 때마다 신규 후원자 등록을 하고, 매달 빠짐없이 기부금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본원이 영등포에서 서울역 부근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 후원금을 따로 전달하기도 했다.



세 손주와 함께 물가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성열 후원자.

“단체든 개인이든 이사를 하면 여러모로 비용이 들게 마련이죠. 마침 지난해 7월 1일에 태어난 친손자의 첫들을 맞아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세 손주의 이름으로 각각 30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1녀 1남을 둔 유 후원자는 외손자 둘(서유하, 서동하)과 친손자(유백현) 한 명, 모두 세 명의 손주를 두고 있다. 올해 각각 10살, 7살, 1살이 된 손주들이 종종 경기도 연천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오면, 함께 어울려 놀고 산책을 하며 귀한 시간을 보낸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잘 따르고 좋아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함께 있으면 정말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의 말에는 손주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유 후원자가 본원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지난 2015년, 성탄절 특집방송을 통해 선우경식 초대 원장의 삶을 접하면서였다.

“그 방송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사시다 가셨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신앙이 독실한 편은 아니지만, 그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죠. 마침 첫 외손자가 태어난 참이라, 집 안에 찾아온 기쁨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첫 후원은 외손자가 태어난 것을 기념해 매달 3만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손주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지금은 매달 15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 일반 후원자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장모님 이름으로도 후원을 하며 꾸준히 선행을 실천해 왔다.

“은퇴 후 지금은 시골 군청의 비정규직으로 제2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선우 선생님께서 공경하셨던 성모님의 은총 덕분인지 손주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는 손주들 이름으로 시작한 이 후원이, 앞으로 자녀 세대에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딸과 아들이 각각 40대 중·초반으로 한창 바쁘게 살고 있을 때이죠. 그래도 제가 가끔 ‘요셉의원에 가서 봉사할 일을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를 돕는 일은, 언젠가 선한 메아리처럼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의 꾸준한 후원과 따뜻한 마음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2025년 8월~9월)



■ 요셉나눔재단

- BAIKYOUNG ● 강경희 ● 강대현 ● 강덕혜 ● 강명순 ● 강명준 ● 강사라 ● 강석윤 ● 강세은 ● 강정숙 ● 강정아 ● 강지연
- 강지훈 ● 강진희 ● 강충환 ● 강한철 ● 강현진 ● 강혜주 ● 강호병 ● 고배근 ● 고상례 ● 고은영 ● 고한철 ● 공민주 ● 곽길순
- 곽나연 ● 곽용현 ● 곽정숙 ● 구영희 ● 권도경 ● 권세일 ● 권수영 ● 권영희 ● 권예진 ● 권오범 ● 권용미 ● 김가별 ● 김가빈
- 김경미 ● 김경원 ● 김경태 ● 김경희 ● 김계숙 ● 김광혜 ● 김근우 ● 김금정 ● 김남욱 ● 김남철 ● 김다솔 ● 김대진 ● 김동우
- 김동준 ● 김동진 ● 김명석 ● 김명선 ● 김명희 ● 김미현 ● 김미희 ● 김민수 ● 김범준 ● 김보영헬레나 ● 김복희 ● 김석인
- 김선두 ● 김선숙 ● 김선희 ● 김선희 ● 김성두 ● 김성애 ● 김세열 ● 김세윤 ● 김소영 ● 김수안 ● 김수진 ● 김순녀 ● 김순영
- 김승우 ● 김승희 ● 김연미 ● 김연욱 ● 김영미 ● 김영종 ● 김영현 ● 김영환 ● 김옥곤 ● 김완철 ● 김용생 ● 김용조 ● 김원경
- 김윤숙 ● 김은미 ● 김은영 ● 김은정 ● 김은지 ● 김일구 ● 김재문 ● 김재숙 ● 김정미 ● 김정숙 ● 김정희 ● 김종서 ● 김주완
- 김주일 ● 김지연 ● 김지훈 ● 김진선 ● 김진영 ● 김진평 ● 김진호 ● 김진희 ● 김찬미 ● 김찬영 ● 김창연 ● 김창욱 ● 김초롱
- 김판주 ● 김필하 ● 김하라 ● 김향운 ● 김현범 ● 김현수 ● 김현숙 ● 김현시 ● 김현우 ● 김현주 ● 김혜련 ● 김혜리 ● 김혜은
- 김호숙 ● 김홍미 ● 김효심 ● 김효은 ● 김효정 ● 남성준 ● 남송현 ● 남수민 ● 남유리 ● 노고운 ● 노진국 ● 도현정 ● 마해륜
- 문미영 ● 문선웅 ● 문순덕 ● 문신정 ● 문은숙 ● 민선영 ● 민선희 ● 민지형 ● 박금옥 ● 박남임 ● 박대남 ● 박동인 ● 박동철
- 박미리 ● 박미자 ● 박미정 ● 박복소리 ● 박상규 ● 박상미 ● 박상원 ● 박상천 ● 박서윤 ● 박서현 ● 박선우 ● 박설경
- 박성향 ● 박세정 ● 박소현 ● 박영식 ● 박유화 ● 박윤광 ● 박은영 ● 박은주 ● 박인순 ● 박재영 ● 박재희 ● 박재희 · 이재만
- 박정국 ● 박정연 ● 박주영 ● 박주영 ● 박주일 ● 박주홍 ● 박준상 ● 박지명 ● 박지민 ● 박지영 ● 박현우 ● 반삼정 방상희
- 방탄팬 ● 방호경 ● 배계정 ● 배서진 ● 백경민 ● 백선숙 ● 변용태 ● 서남희 ● 서동삼 ● 서미애 ● 서민재 ● 서상준 ● 서상희
- 서성은 ● 서수호 ● 서예윤 ● 서원두 ● 서정빈레문도 ● 서정이 ● 서종훈 ● 서지영 ● 서 현 ● 서혜린 ● 선정미 ● 성민경
- 성하나 ● 송경희 ● 송민주 ● 송성미 ● 송수연 ● 송은희 ● 송정수 ● 신미진 ● 신상범 ● 신예빈 ● 신은경 ● 신은성 ● 신은정
- 신이슬 ● 신지연 ● 신지영 ● 신초롱 ● 심윤숙 ● 안상숙 ● 안소연안나 ● 안여주 ● 양두진 ● 양미혜 ● 양정훈 ● 양지수
- 양진성 ● 양진용 ● 어은주 ● 엄인선 ● 엄규원 ● 엄보라 ● 오근영 ● 오덕주 ● 오은주 ● 오정희 ● 오주현 ● 오찬혁 ● 우미영
- 이상필 ● 우재관 ● 우정미 ● 유상중 ● 유선희 ● 유영무 ● 유용미 ● 유재곤 ● 유재민 ● 유재수 ● 유현덕 ● 윤국선 ● 윤기석
- 윤기찬 ● 윤나온 ● 윤명호 ● 윤민설 ● 윤설리 ● 윤소정 ● 윤수한 ● 윤종욱 ● 윤진영 ● 윤진 ● 윤치성 ● 윤해원 ● 이강훈
- 이경민 ● 이경아 ● 이경일 ● 이경혜 ● 이경호 ● 이근우 ● 이누리 ● 이담휘 ● 이도원 ● 이동섭 ● 이동진 ● 이미성
- 이미정 ● 이미준 ● 이미희 ● 이민성요한 ● 이민철 ● 이상기 ● 이서진 ● 이석민 ● 이석원 ● 이선민 ● 이성섭 ● 이소은
- 이소화데레사 ● 이수빈 ● 이수연 ● 이승빈 ● 이승은 ● 이승환 ● 이여름 ● 이영희 ● 이옥주 ● 이요한 ● 이용범 ● 이우정
- 이원정 ● 이유림 ● 이은경 ● 이은주 ● 이은희 ● 이자영 ● 이재경 ● 이재빈 ● 이재혁 ● 이재호 ● 이정희 ● 이종현 ● 이주병
- 이준호 ● 이준화 ● 이준희 ● 이지연 ● 이진우 ● 이진 ● 이채리 ● 이태직 ● 이택수 ● 이하숙 ● 이하원 ● 이현아 ● 이해영
- 이해영 ● 이해자 ● 이해진 ● 이호진 ● 이효원 ● 이희영 ● 임경희 ● 임규성 ● 임나형 ● 임미순 ● 임아름 ● 임용희 ● 임정아
- 장경지 ● 장근화 ● 장석준 ● 장영숙 ● 장재웅 ● 장지영 ● 장지혜 ● 장현명 ● 장혜진 ● 전국완 ● 전명자 ● 전병덕 ● 전유영
- 전준현 ● 전현구 ● 전희삼 ● 정강석 ● 정규석 ● 정다운 ● 정달동 ● 정명옥 ● 정문주 ● 정보원 ● 정석환 ● 정선빈 ● 정소영
- 정신의 ● 정연석 ● 정영민 ● 정영은 ● 정의진 ● 정일란 ● 정주열 ● 정태웅 ● 정해경 ● 정형규 ● 정혜진 ● 정흥남 ● 조경아
- 조고은 ● 조규환 ● 조나은 ● 조명건 ● 조성원 ● 조영인 ● 조윤아 ● 조은정 ● 조한웅 ● 조현정 ● 주단엘 ● 주석훈
- 주영순 ● 주오례 ● 차승자 ● 차영희 ● 천양수 ● 최경숙 ● 최담 ● 최명주 ● 최민순 ● 최복례 ● 최석규 ● 최성희 ● 최소정
- 최수지 ● 최시내 ● 최시연 ● 최애련 ● 최유진 ● 최유하 ● 최윤미 ● 최은 ● 최은비 ● 최은주 ● 최은준 ● 최정애 ● 최정현



- 최종업 ● 최종인 ● 최지영 ● 최진철 ● 최현주 ● 최환석 ● 추선정
- 편재억 ● 하신숙 ● 하유미 ● 하필종 ● 한동규 ● 한명환 ● 한민구
- 한상기 ● 한성은 ● 한신호 ● 한인영 ● 한정림 ● 한혜수 ● 한효승
- 허경숙 ● 허 분 ● 허 진 ● 형선영 ● 홍기정 ● 홍상호 ● 홍수영
- 홍희수 ● 황선영 ● 황수산나 ● 황시온 ● 황우택 ● 황정민 ● 황정희

■ 요셉의원

- 권현대 ● 김경민 ● 김기현 ● 김길연 ● 김서린 ● 김성준 ● 김은실 ● 김준오
- 김태환 ● 김현주 ● 김효석 ● 도관용 ● 문준래 ● 박기철로렌조 ● 박문신
- 박은태 ● 박준현 ● 배영숙 ● 소동윤 ● 송지원 ● 유경미 ● 유주원 ● 윤진수
- 이가은 ● 이기승 · 현해인 ● 이수연 ● 이승민 ● 이주운 ● 이지현 ● 이형훈
- 이호찬 ● 전효진 ● 정영은 ● 정용섭 ● 조병관 ● 조성호(조피부과) ● 조인용
- 차영범 ● 최산이 ● 최옥순 ● 편영자 ● 홍경미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5년 8월~9월)



■ 요셉나눔재단

- (주)다움종합건설신 ● (주)미리내자원 ● 개포동성당 ● 유정시스템(주)
- 주식회사 아토즈에어

■ 요셉의원

- 주식회사 라린드 ● 커브스마들클럽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5년 8월~9월)



- 가톨릭대신학교 사제 일동 : 사과 1상자 ● 강신걸 · 김선화(피스오븐혜븐) : 빵 180봉지 ● 김진성 : 죽 480개 ● 김평옥 유스티나 : 밤호박 1상자 ● 박희경 : 방울토마토 1상자 ● 이연주(치과봉사의) : 배 1상자 ● 익명 : 쌀 280kg, 라면 100개
- 행선당(괴산군) : 야채 4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5년 8월~9월)



- 박 * 경(부산) : 의류 1상자

+ 의료기·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5년 8월~9월)



- 이태복기념사업회 : 세타돌세미정 ● 제일한방 : 한방파프 ● 하나제약 : 가바펜틴외 30건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5년 8월~9월)



- 보라매병원(응급의학과) : 마스크 520장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요셉나눔재단 인사 발령



- 사무부총장 신용 신부
- 2025년 9월 15일부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김상현(신경과) 송한별(외과) 황흥곤(심장내과) 김미진(치과) 김보람(치과) 안은영(치과)
- 약 사 : 김미정 변효진 신정순 양취매 이소영 이영숙 이정현 이주영 이해용 최명자 최현정 황의영
- 간호사 : 김수혜 김양호 김정숙 박다운 정혜정 홍연오

- 치과위생사 : 이은주
- 임상병리사 : 김경애 서미선 윤문정
- 방사선사 : 김성수
- 일반 봉사
- [간호팀] 1명
- [원무팀] 4명
- [약제팀] 덕성여대 1명 동국대 6명 일반 3명
- [치과팀] 1명
- [방문진료팀] 방문상담(임상사목) 2명 일반 방문 2명
- [현관팀] 4명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쪽방 주민(쌀)
- 토마스의 집(쌀)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5년 8월	959 명
2025년 9월	1,281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5년 9월 말 현재)

775,724 명

“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5.08~09



필리핀요셉의원



김다술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임영애 후원자 지원으로 의료기기 교체 사업 진행



새로 들어온 치과 유닛 체어(오른쪽)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최원석 치과봉사의.

필리핀 요셉의원은 임영애 후원자의 따뜻한 후원으로 의료기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015년 도입 이후 약 10년간 사용해 온 치과 진료 의자인 유닛체어가 노후화돼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리를 거듭하며 진료를 이어왔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점차 늘어나는 치과 환자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치과 유닛체어가 필요하던 차에 임후원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번 교체는 특히 마닐라중앙대학교(MCU) 치과대학과의 협력 진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의료진이 함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돼 진료의 효율성과 품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본원은 이와 함께 이비인후과 유닛 교체 준비도 함께 진행 중이다. 2013년 진료소 설립 이후 이 장비도 교체하거나 대규모 수리를 진행하지 않아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다. 이번 교체 작업에서는 이비인후과 전용 내시경 장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정확하고 세밀한 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다술 원장신부는 “이번 의료기기 교체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후원자 임영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맞이 치과 진료봉사 실시

필리핀요셉의원은 지난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추석을 맞아 치과 진료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를 통해 100여 명의 환자들이 발치와 보철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과 진료를 받았다.

이번 봉사에는 기회가 되면 본원을 찾아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최원석 봉사의와 매년 2~3회 필리핀을 방문해 의료 봉사를 진행하는 조장운 봉사의, 그리고 치대에 재학 중인 임진하 학생이 함께 참여했다. 세 명의 봉사자는 추석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필리핀까지 날아와,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특히 이번 봉사는 최근 새로 도입한 치과 유닛체어를 활용한 첫 진료로, 장비의 초기 세팅과 적응 과정에 세 봉사자가 직접 도움을 주었다. 이에 따라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이 마련되었



치과 환자 치료를 하고 있는 조장운 봉사자와 말루 간호사.

으며, 환자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이번 봉사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연휴를 포기하고 명절 기간을 필리핀에서의 봉사로 가득 채운 더욱 뜻깊은 일정이었다.+



복음 묵상

'같은 곳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요셉의원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단순히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 이상입니다. 치료를 통해 현재의 고통을 덜고 미래를 저당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필리핀은 도시보다도 시골, 특히 바닷가가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나 보라카이, 보홀 같은 휴양지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곤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휴양지를 방문해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닷가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모두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을 눈에 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상에서는 찾기 어려운 절경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은 풍경을 구경할 새가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절경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향해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아볼까, 여행 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해 볼까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사람들 사이를 누핌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관광지인 삶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절박함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지 못하고 생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마주하며 요셉의원 주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의원이 있는 가난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이들의 일상은 무척이나 기운 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볼 시간도, 아름다운 노을을 구경할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주안점은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희망 있는 인생의 앞날이 아니라 암울한 현실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이 더욱 그들의 의지와 삶의 충실성을 빼앗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를 이어오며 수십 년째 같은 곳에서 비슷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운 바가 없으니, 그저 주변에서 늘 보아오던 일을 이어받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제일 임금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운전사, 공사장 보조, 매일 일감을 찾아다니는 임시직 일꾼이 그것입니다. 여성들은 더 제한적입니다. 가난한 지역에서는 어떤 일인지 자녀도 많습니다.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일하러 나가는 힘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우리네 옛날처럼 남의 집 빨래를 대신해 주거나 남의 집 허드렛일을 돕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임금 수준으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는 어렵습니다. 생활 물가는 높아져서 적은 임금으로 저축은 꿈도 꿀 수 없고, 심지어는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의 교육에 힘쓰기도 어렵습니다. 공립 학교는 학비가 무료이지만 육성회비 같은 부대 비용이 필요할뿐더러 학교의 요구사항을 따르다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게다가 공립교육 지원 수준이 낮아서 교과서는 두 세 명이 하나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립학교를 다니면 영어도 잘 익힐 수 있고 더 나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학비는 가난한 이들이 감당 못할 수준입니다. 그 때문에 어지간한 의지 없이는 공립학교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교육을 대충 받다가 별다른 목적의식도, 미래에 대한 설계도 없이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족 중 누구라도 아프기 시작하면 가정에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공공의료는 무료지만 밤 12시부터 줄을 서야 아침에 겨우 진료받을 수 있고, 검사 일정을 잡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다가 병을 키워 급하게 사립병원 응급실이라도 가게 되는 날에는 단순 진료만으로도 3, 4일치 임금을 지급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결국 이곳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동기가 부족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미래가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당장 현재의 고달픔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고생이 보답받지 못하는 사회. 지금의 희생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삶이란 생각보라도 무척 절망적입니다.

요셉의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응급 구호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목숨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무료 진료를 통해 작은 병을 키울 필요가 없음을 알리고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도록 힘을 주는 장학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정으로 미래까지 담보 잡히지 않도록, 솟아날 곳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현실이 포기모 무리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요셉의원이 이곳에서 하는 일은 단순히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 이상입니다.

치료를 통해 현재의 고통을 덜고 미래를 저당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종래에는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방배동성당, 따스한 '사랑의 손길' 한 아름 건네



지난 9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서울 방배동성당은 필리핀 요셉의원을 위한 특별 모금 활동을 펼쳤다. 이번 모금 행사는 권철호 다니엘 주임신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토요일 특전 미사부터 주일 저녁 미사까지 모든 미사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모금 활동은 필리핀 현지에서 요셉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및 사회사목 활동을 알리고, 서울대교구가 해외에서도 사회사목을 통해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전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의 의료 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함께 상영함으로써, 미사 참석자들이 현지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필리핀 요셉의원 김다솔 원장신부는 강론에서 "이런 후원이 어찌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사회 구조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도움받는 사람들의 삶에서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게 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원 모금 미사(사진 위) 후 김다솔 신부와 자리를 함께 한 박현선 후원회장(가운데)과 주은경 운영위원.

신부는 그런 나눔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후원회원 가입을 촉구했다.

이번 후원 미사와 모금 활동에 힘입어, 400명 이상의 신자가 일시 후원 또는 정기 후원에 참여하며 따듯한 연대의식을 보여주었다. 김다솔 신부는 "귀한 정성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요셉의원이 희망의 끈이 되어 주겠다"고 다짐했다. +





+ 2025년 8~9월 신규 후원단체

- 강경재 ● 강근수 ● 강기성 ● 강명철 ● 강미경
- 강미영 ● 강미정 ● 강순희 ● 강영수 ● 강은정
- 강인석 ● 강전숙 ● 강치훈 ● 강형구 ● 강희덕 ● 강희란 ● 고영덕 ● 고영옥 ● 고정은 ● 광연선 ● 광재호 ● 구나나 ● 구수미
- 구은진 ● 구정란 ● 권병휘 ● 권선옥 ● 권자영 ● 권혁천 ● 권현정 ● 권혜라 ● 권희주 ● 글라라 ● 길덕중 ● 김가영 ● 김경선
- 김경숙 ● 김광빈 ● 김나경 ● 김나영 ● 김남수 ● 김대희 ● 김동언 ● 김동하 ● 김동호 ● 김동호 ● 김두현 ● 김미경 ● 김미연
- 김민성 ● 김민재 ● 김병익 ● 김보령 ● 김서윤 ● 김선화 ● 김성민 ● 김성욱 ● 김세일 ● 김소라 ● 김숙현 ● 김신의 ● 김연수
- 김영빈 ● 김영숙 ● 김영지 ● 김영진 ● 김영호 ● 김옥수 ● 김은경 ● 김은화 ● 김이안 ● 김정매 ● 김정수 ● 김정아 ● 김정희
- 김지영 ● 김지영 ● 김지혜 ● 김진순 ● 김태영 ● 김하영 ● 황지택 ● 김행순 ● 김현수 ● 김현숙 ● 김현아 ● 김형승 ● 김혜수
- 김혜원 ● 김홍열 ● 김후례 ● 김흥기 ● 나귀수 ● 나은희 ● 남주빈 ● 노경숙 ● 노수지 ● 노준철 ● 다니엘 ● 두혜옥 ● 류의영
- 류재덕 ● 명전옥 ● 모정현 ● 박경훈 ● 박다혜 ● 박덕문 ● 박도예 ● 박명숙 ● 박미숙 ● 박미영 ● 박 선 ● 박선영 ● 박선정
- 박성연 ● 박성원 ● 박성준 ● 박소연 ● 박소영 ● 박영옥 ● 박재은 ● 박재혁 ● 박정현 ● 박주은 ● 박주현 ● 박준현 ● 박찬익
- 박현숙 ● 박혜경 ● 박혜숙 ● 박혜영 ● 박황호 ● 박흥서 ● 방경화 ● 방용주 ● 방호주 ● 배성아 ● 배순희 ● 백상철 ● 변미혜
- 서방원 ● 서승재 ● 서원길 ● 서은희 ● 서화석 ● 서효원 ● 서희정 ● 선정연 ● 성낙범 ● 성미경 ● 손 유 ● 손헌정 ● 손화석
- 송경자 ● 송남순 ● 송미숙 ● 송미애 ● 송영순 ● 송은희 ● 송인숙 ● 송호준 ● 신상헌 ● 신상호 ● 신승도 ● 신영철 ● 신주리
- 신해민 ● 신후자 ● 심 명 ● 심은실 ● 심현숙 ● 안재영 ● 안택순 ● 안형준 ● 안혜준 ● 안희월 ● 양동윤 ● 양석원 ● 양순정
- 양영옥 ● 양은진 ● 양현석 ● 엄태준 ● 오미숙 ● 오세오 ● 오세용 ● 오숙녀 ● 오인식 ● 오치순 ● 우종일 ● 유국자 ● 유근탁
- 유봉순 ● 햇빛나라 ● 유선영 ● 유소영 ● 유순례 ● 유영상 ● 유오성 ● 유종욱 ● 유지연 ● 유현숙 ● 육보민 ● 윤경순 ● 윤보현
- 윤순구 ● 윤연희 ● 윤영숙 ● 윤영은 ● 윤재원 ● 윤재환 ● 윤하용 ● 윤혜원 ● 윤희구 ● 은수진 ● 이각용 ● 이강애 ● 이건우
- 이경미 ● 이경희 ● 이근우 ● 이근욱 ● 이기화 ● 이맹우 ● 이명자 ● 이명주 ● 이문옥 ● 이미연 ● 이미향 ● 이병천 ● 이상복
- 이상유 ● 이상훈 ● 이세형 ● 이세훈 ● 이소현 ● 이수연 ● 이수진 ● 이승희 ● 이신우 ● 이연화 ● 이연희 ● 이영목 ● 이영민
- 이영순 ● 이영신 ● 이영실 ● 이완수 ● 이욱기 ● 이은다 ● 이은정 ● 이은희 ● 이재준 ● 이준영 ● 이지수 ● 이지원 ● 이지은
- 이진숙 ● 이진호 ● 이창근 ● 이춘희 ● 이치훈 ● 이현수 ● 이현진 ● 이혜선 ● 이혜숙 ● 이효재 ● 임미숙 ● 임상분 ● 임소연
- 임연희 ● 임이랑 ● 임정석 ● 임정은 ● 임지연 ● 임현규 ● 장영란 ● 장윤정 ● 장준호 ● 장지혜 ● 장한희 ● 장효주 ● 장희숙
- 전문수 ● 전병각 ● 전보경 ● 전율하 ● 전현선 ● 정길남 ● 정다은 ● 정다희 ● 정민화 ● 정병석 ● 정선영 ● 정선영 ● 정성엽
- 정숙희 ● 정순자 ● 정승우 ● 정승재 ● 정승희 ● 정안나 ● 정유경 ● 정지원 ● 정진우 ● 정찬원 ● 정현재 ● 정혜정 ● 정휘경
- 조경미 ● 조영옥 ● 조영인 ● 조옥희 ● 조운주 ● 조인숙 ● 조자희 ● 조정임 ● 조정자 ● 주식회사대용씨엔티 ● 주신혜 ● 주영희
- 차소순 ● 차영자 ● 채익선 ● 천기성 ● 천은숙 ● 최기남 ● 최미경 ● 최복순 ● 최성욱 ● 최세영 ● 최순예 ● 최승희 ● 최양자
- 최영호 ● 최원효 ● 최윤성 ● 최은교 ● 최은주 ● 최인영
- 최재욱 ● 최종혁 ● 최주호 ● 최형일 ● 최희주 ● 피경선
- 피경희 ● 하영유 ● 하정재 ● 한동준 ● 한복진 ● 한원화
- 한은애 ● 한혜숙 ● 한혜영 ● 함용일 ● 허가영 ● 허경무
- 허윤미 ● 최보경 ● 허지은 ● 홍성호 ● 홍용표 ● 황경은
- 황용현 ● 황인정

+ 2025년 8~9월 신규 후원단체

- 2025년 첫영성체 어린이

+ 2025년 8~9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2,841명 ● 급식 842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 (2025년 9월 현재)

- 진료 117,812명 ● 급식 497,694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매주 월요일 17 : 10 요셉의원(서울역)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2025.08~09

홀씨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국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홍근표 지도신부 강론



“사랑은 널리 퍼져나가야 합니다”

루카복음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날이 새자 떠나가셨고, 군중은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루카 4,43)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으로 이어져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로 널리 퍼져나갑니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루카 4,34)

반면, 위의 마귀 들린 사람의 ‘무슨 상관이 있냐’는 물음은 사랑이 단절되는 시초가 됩니다. 마귀에 의해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되어 사랑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아프리카, 중남미의 교회가 가난하여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강도당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국성회도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관계를 끊지 않고 사랑과 도움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2025년 9월 3일 (수) 국성회 후원회 미사 강론에서)



[선교 현장에서 온 편지] 에콰도르의 산타 엘레나에서 성경공부 지원 요청

“가족 단위의 성경읽기가 지역 단위로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신구약 성경 통독을 마친 후 체험 나누기를 하는 장면.

안녕하세요 국성회 여러분. 오랜만에 에콰도르의 산타 엘레나에서 인사드리는 성령강림 사도 수녀회 김미옥 마리 스콜라스티카 수녀입니다. 2019년과 2023년 이미 두 차례 후원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곳 신자들과 함께 읽는 매일 성경읽기 모임이 지난 달로 여섯 번째 신구약 통독을 마쳤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석자 수가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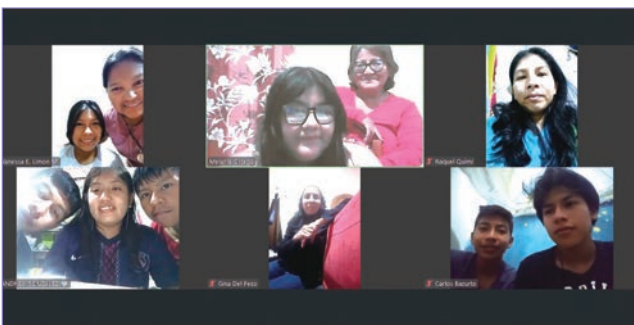
방학기간 청소년들과 함께 한 3일간의 성경통독 피정을 마치고.

지고 점점 가족 단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는 50가구 정도지만 인원수로는 80여 명입니다. 구약을 시작하다가 번번이 그만두는 이들도 있지만, 꾸준히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곱 번째 창세기를 새로 시작했는데, 이번에 시작하기 전, 저희가 속한 공소에서 미사 후에 공지하고 초대했더니 19명의 신자가 신청했고, 이미 성경 통독 중인 가족들도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체험 나눔에 많은 가족 감동

이번에 공소에서 공지할 생각이 든 이유는, 함께 읽고 있는 가족들이 체험을 나누면서 너무나 좋아했고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하며 용기를 갖고 처음으로 신부님께 양해를 구하고 공지했더니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매일 읽을 분량을 보름 단위로 인터넷 그룹에 올려주면 개인이든, 줌이든 참가자들은 매일 그 분량을 읽고, 저는 읽은 사람을 확인해 줍니다. 서로 눈으로 확인하기에, 그리고 함께 읽어가는 것이기에 중도에 그만두는 이가



줌(zoom)을 이용한 성경읽기 공부 모습.

적고, 1년이면 신구약 통독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국성회에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구입한 성경은 글씨도 크고 표지도 튼튼해서 모두 참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갈 때 머리글이 있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곳에는 참 다양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소지하고 있는 성경은 대부분 오래된 옛날 번역본이거나 개신교 번역본도 있는데, 차이를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통독 피정도 확대할 계획

이곳에는 아직 신구약 통독을 하는 피정이나 모임이 없기에, 다들 나름대로 시도해 봤지만, 끝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더 큰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소 신자들에게 공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는 점점 더 많은 신자에게, 이 지역 신자들 모두에게 성경읽기 모임에 대해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게 맡겨주신 또 하나의 소명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작된 작은 말씀 읽기의 씨앗이 6년을 지속할 수 있게 한 힘은 바로 성령의 힘이였음을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우리 수녀회가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 사도직 가운데 하나가 피정 사도직으로서 바로 성경통독 피정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저희도 이곳 에콰도르에서 매일 30분씩 개인으로, 또는 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가족이 같은 시간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 이웃과 공부방 어린이 가족, 봉사자들 가족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설명하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숫자는 놀라게 늘어나고 앞으로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가난해서 성경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성경을 보급해 주는 것도 꾸준히 계속하고 싶습니다.

저희 공부방에 오는 70명의 아이들은 이 지역에서 특히 더 가난한 지역 출신입니다. 부모에게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거칠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책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바오로 서적에 특별히 좋은 신앙서적이

많아 신앙 교육, 인성 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에게 책 읽기를 습관화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 외에 일반인 에게도 공부방 도서관을 개방하고 책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에는 타 종교 학생들도 여럿 있지만, 저희 와 함께 매일 마침기도로 묵주 기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성경 동화를 읽으면서



국성회 후원금으
로 구입한 성경책

저절로 기도문도 외우게 됩니다. 어린이 신앙교육은 조금 씩 스며들듯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급한 이들에게 권당 20달러가 넘는 성경을 구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 염치불고하고 성경을 재요청합니다. 늘 감사드릴 뿐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에콰도르 산타 엘레나에서 김미옥 마리 스콜라스티카 수녀 드림

☞ 2025년 10월 15일 스페인어 성경 80권, 어린이 스페인어 그림성경, 바오로 서적 어린이 성인전과 신앙서적을 후원하였습니다.(총 \$2,460=3,516,000원)

※ 이전의 지원 내역

☞ 2019년 7월 17일 스페인어 성경 70권, 스페인어 어린이 축약성경 100권을 후원하였습니다.(총 \$1,870=2,229,040원)

☞ 2023년 5월 3일 스페인어 성경 70권, 그림성경 및 성인전을 후원하였습니다.(총 \$2,224=3,005,040원)



[가톨릭 상식]

에콰도르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현황



에콰도르는 남미에서 가장 강력한 가톨릭 전통을 지닌 국가 중 하나로서, 인구의 약 70% 정도(약 1,170만)가 가톨릭 신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콰도르의 가톨릭 선교는 약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페인이 에콰도르를 정복한 뒤 1545년 키토(Quito) 교구가 세워지면서 선교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도미니코회가 아마존 지류의 다양한 인디오 부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실시하였으나, 1599년 히바로스족에 의해 선교활동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예수회의 도움으로 선교활동이 재개돼 17세기 말까지 그리스도교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다 1767년 에콰도르 나포 지역에서 10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33개 선교부를 둔 예수회가 추방당하자 도미니코회는 더 이상 선교를 계속하기가 힘들어졌고, 원주민들은 다시 이교도 신앙으로 돌아갔다.

19세기 들어 남미의 북부 지역은 스페인에 맞서 독립운동과 전쟁을 벌여 1822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고, 에콰도르는 1830년 그란 콜롬비아 연합국에서 분리돼 독립공화국이 됐다. 그란 콜롬비아(1819~1831, 오늘날의 콜롬비



산타 엘레나 교구의 산타 엘레나 황후 주교좌 성당.

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영토, 가이아나와 브라질의 일부 영토를 포함한 연합국) 시대와, 그란 콜롬비아 해체 이후 에콰도르는 자유주의 기조의 공화정을 거치며 가톨릭은 거의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후 1861년 보수주의 색채의 가르시아 모레노 대통령이 집권하며 에콰도르는 '가톨릭 국가'로 재편됐다.

1862년에는 로마와 협약이 체결돼 새로운 교구가 설립되었고, 복귀한 예수회와 다른 선교회가 공교육을 맡게 되었다. 1869년의 헌법 제정 이후 가톨릭이 국교가 되었고, 가톨릭 신자만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95년 들어 상황이 역전됐다. 엘로이 알파로의 자유주의 혁명으로 수도회가 추방되고 교회 재산이 국유화되는 등 가톨릭 교회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자유주의 정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했으며, 공교육은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세기 들어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면서 교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나,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교육과 사회, 신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종교 분포(2023년 기준) : 가톨릭(68%), 개신교(22%), 무교(8%), 기타(2%)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5년 8월~9월)

- 강석철 ● 강은영 ● 강정아 ● 강화정 ● 고도원 ● 고동현 ● 고현수 ● 고현주 ● 곽순용 ● 곽혜숙 ● 구경모 ● 권희백 ● 김경준 ● 김경희 ● 김금재 ● 김기연 ● 김대곤 ● 김덕순 ● 김동화 ● 김만길 ● 김명숙 ● 김명희 ● 김미현 ● 김병희 ● 김석주 ● 김성권 ● 김성중 ● 김수미 ● 김수현 ● 김영추 ● 김영환 ● 김윤순 ● 김재영 ● 김정연 ● 김정임 ● 김진숙 ● 김태규 ● 김태남 ● 김태성 ● 김태희 ● 김해숙 ● 김현경 ● 김현숙 ● 김현준 ● 김현호 ● 김형주 ● 김혜숙 ● 김희수 ● 나삼균 ● 도성록 ● 류연자 ● 류지한 ● 류혜선 ● 문경호 ● 문순자 ● 박병윤 ● 박성하 ● 박소향 ● 박수진 ● 박언빈 ● 박재우 ● 박창희 ● 박준옥 ● 박향순 ● 박혜숙 ● 박화영 ● 배광역 ● 배보윤 ● 배소영 ● 배창희 ● 백영희 ● 사공일 ● 서현동 ● 서효리 ● 성정인 ● 성효인 ● 손소영 ● 손필숙 ● 손현채 ● 송미경 ● 송보영 ● 송재욱 ● 신해경 ● 심정현 ● 안예진 ● 양기라 ● 양영실 ● 양창호 ● 엄옥진 ● 오세형 ● 오승웅 ● 오영신 ● 위원량 ● 유영희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창현 ● 이강득 ● 이강림 ● 이건창 ● 이금희 ● 이미순 ● 이미용 ● 이보경 ● 이상현 ● 이석재 ● 이승현 ● 이영희 ● 이용순 ● 이용애 ● 이원석 ● 이일숙 ● 이일호 ● 이장순 ● 이재림 ● 이재익 ● 이정희 ● 이종대 ● 이종상 ● 이주현 ● 이준호 ● 이종환 ● 이지윤 ● 이진수 ● 이학천 ● 이향희 ● 이현옥 ● 이혜순 ● 이혜연 ● 이희우 ● 임선영 ● 임옥란 ● 임진수 ● 임태남 ● 장민정 ● 장수진 ● 전대영 ● 전명희 ● 전성인 ● 전소연 ● 전 숙 ● 전유민 ● 정수자 ● 정영길 ● 정영미 ● 정은주 ● 정진영 ● 조경연 ● 조덕순 ● 조무건 ● 조소연 ● 조주연 ● 조하영 ● 조현순 ● 조혜인 ● 주현수 ● 진수은 ● 최경의 ● 최경재 ● 최두혁 ● 최명옥 ● 최영연 ● 최영자 ● 최윤자 ● 최종숙 ● 하금태 ● 한나진 ● 항상 감사드립니다 ● 허 근 ● 허봉희 ● 허순덕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황영희 ● 황태운 ● 황현지 ● 익명후원자 ● 진석실업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 (2025년 8월~9월)

- 김경식 ● 김원호 ● 박우준 ● 서상범 ● 오창선 ● 유경춘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조인기 ● 최광희 ● 최명근 ● 최정훈 ● 한정화 ● 홍근표 ● 익명후원자

+ 국성회 후원 방법

1. CMS 신청

-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연락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 신청자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신청자 본인의 은행명과 계좌번호, 월 출금액, 출금을 원하시는 날짜(1일/10일/25일)가 필요합니다.
- 신청자와 은행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의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합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2025년 8월~9월 후원금 내역 : 11,350,000 원

2025년 11월 국성회 후원회 미사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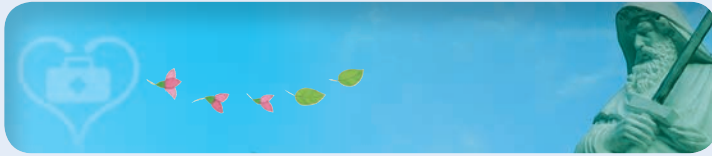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역 요셉빌딩 7층 경당(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89)
교통 : 지하철 1호선, 4호선 서울역 14번 출구 앞.
 버스는 서울역환승센터, 남대문경찰서, 갈월동 버스정류장에서 10분 이내.

신사베드로 성당 국성회 홍보 미사 안내

일시 : 2025년 11월 22일(토) 18:00 토요일미사
 11월 23일(일) 06:30, 09:00, 11:00, 18:00 주일미사
장소 : 천주교 신사베드로 성당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11길 124)
교통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도보 10~15분, 지하철 2호선 신림선 신림역 5번 출구에서 도보 15~20분.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 마태오 9, 36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8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
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2-2637-7258)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banking, 모바일 banking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2-2637-7258)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
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4-557810	요셉나눔재단법인
국민은행	364301-04-236621	요셉나눔재단법인

■ 위의 계좌 이외에 기존에 납입하고 계신 요셉의원 계좌도 유효합니다.

요셉의원 이전에 따른 환자 지원 프로그램 변경 안내



목욕서비스

필요에 따라 운영 예정



이미용서비스

프로그램 준비 중



옷 나눔서비스

필요한 환자에게 별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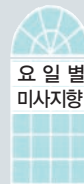
음악 치료 & 영화 포럼

별도 공지 때까지 중단

✦ 이외 기존 운영 프로그램은 별도 공지 때까지 중단됩니다.

미 사
안 내

요셉의원 7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요일 별
미사지향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
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봉사 경험과 진료받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진료받으며 느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